

# 중국증시 급락 코멘트 (한국시간 14:11 현재)

## 상해종합지수 과거 저점 (2016년 1월 말 2,638pt) 첫 하향돌파

중국증시, 전일 미국증시 급락으로 3%대 하락 출발 후 과거 저점 첫 돌파 → 오후장 낙폭 5%대로 확대

- 상해종합 2,591.50pt (-4.95%), 심천성분 7,552.63pt (-5.73%), CSI300 3,133.49pt (-4.53%)
- 전일 미국증시 급락에 따른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 강화로 매물 집중 출회
- 상해종합지수, 한국시간 11시 49분경 2016년 1월 말 저점 (2,638pt) 첫 하향돌파해 2,607pt까지 하락 → 오후장 개장 직후 2,600pt까지 돌파해 2,591pt까지 하락한 상황
- 낙폭 큰 섹터: 에너지설비 -9%대, 환경/기초금속/통신설비/인터넷 -7%대, 전자부품/정밀화학/무역/항구/항공우주/미디어/수력 -6%대, 소매/기계/자동차부품/반도체/관광/증권/항공/석유화학/제약 -5%대
- 홍콩증시 동반 급락: 홍콩恒生지수 25,169.53pt (-3.90%), 홍콩H지수 10,000.18pt (-4.25%)

중국증시, 대내외적 굼직한 부담요인 산재 속에 투자심리 개선 난항 장기화 → 보수적 관점 유지

- **[과거 저점 첫 돌파]** 상해종합지수가 미중 무역분쟁 본격 점화 (3/23) 이후 하락세 지속 → 8월 중순 과거 저점 (2016년 1월 말 2,638pt) 근접 → 8~9월 동 저점 위에서 지지선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 → 대내외적 굼직한 부담요인 속에 증시 반등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 지속 → 10/11 미국증시 급락 자극으로 동반 급락하면서 2,638pt 저점 첫 돌파 → 장중 낙폭 확대되면서 저점 인식이 2,600pt 이하로 조정
- **[반등 모멘텀 부족]** 반등 모멘텀이 부족한 원인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우려, 위안화 약세, 대내적으로 중국 경기둔화, 금융 레버리지 축소, 부동산 규제 등 굼직한 부담요인들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임. 비록 인프라 취약점 보완, 소비 잠재력 자극, 기업·개인 감세 등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한 조치가 있었음. 그러나 과거 '홍수범람'식의 부양정책과는 성격이 다른 '수위조절'식의 조치에 불과하므로 대내외적인 굼직한 악재 해소에는 역부족
- **[투자심리 회복 난항]** 올 들어 대내외적인 굼직한 부담요인들이 산재된 상황에서 투자심리는 이미 상당 기간 위축된 상황. 약간의 추가적인 자극요인이 나타날 경우, 증시는 재차 급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전일 미국증시의 급락, 루캉 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등이 금일 증시 급락의 자극요인으로 판단
- **[中 외교부 발언]** 10/10 루캉 中 외교부 대변인 발언: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양국의 비교우위와 국제 산업분업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양국 무역은 절대로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이 중국으로 부(富)를 수송하는 일방통행'이 아님. 미국은 자세를 바로 하고, 사실을 존중하며, 중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을 멈추고, 양국 무역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함. 미국은 양국 상공업계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 함
- **[주요지수 차별화 현상]** 10/11 현재 기준 상해종합지수, 심천성분지수, CSI300지수는 과거 (2016년 1월 말) 저점 대비 각각 -1.56%, -15.75%, +11.35%의 위치에 있음. 즉 상해·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우량주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300지수는 아직 과거 저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향후 추가 악재 또는 자극요인 발생 시 이익실현 여지가 아직 존재. 한편 홍콩恒生지수, 홍콩H지수는 과거 (2016년 1월 말) 저점을 각각 37%, 33% 상회한 수준에 있음
- **[위안화 약세]** 위안/달러 환율은 올해 6~8월 중순 상승세 (=위안화 약세) 지속 → 8월 인민은행의 환율 산정기준 역주기 요인 도입 후 약 한 달간 진정세를 보였으나, 9월 하순부터 재차 약세 흐름 보임

정유와 은행 섹터, 주요지수에 비해 연초대비 상대적 선방. 특히 은행섹터는 방어주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함

- 연초대비 낙폭이 10% 미만인 섹터는 정유 (-1.65%), 은행 (-7.65%)뿐. 정유섹터는 시총이 절대적으로 큰 페트로차이나 (601857.SH; 연초대비 +12.54%), 중국석유화학 (600028.SH; 연초대비 +13.89%) 이 선방. 은행섹터는 5대 국유은행인 공상은행 (601398.SH; 연초대비 -8.37%), 건설은행 (601939.SH; 연초대비 -8.33%), 중국은행 (601988.SH; 연초대비 -6.91%), 농업은행 (601288.SH; 연초대비 +1.15%), 교통은행 (601328.SH; 연초대비 -5.25%) 등 종목이 상대적으로 선방

## 투자자 고지 사항

---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